

스티로폼 재활용 공장을 견학 다녀 온 후....

No.

나는 얼마전 스티로폼 재활용 공장에 다녀왔다.
 처음엔 스티로폼로 무엇을 한다는거야?
 이렇게 생각했는데, 직접 가서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.
 우리는 공장에 가면서 비디오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.
 그 프로그램은 스티로폼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,
 나는 그것을 보면서 스티로폼로도 액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
 처음으로 알게되었다.



일단 첫 번째 방문한 공장은 스티로폼을 1/30-1/40 으로 축소시키는 공장이었다.
 직접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신기했다.
 우리는 스티로폼을 직접 넣기도 하면서 관찰했다.
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잉고트라고 하는 것이었다.
 그 다음 두 번째 공장에서는 첫 번째 공장에서 만든 잉고트를 다시 변형시켜 액자를 만드
 는 곳이었는데, 그 곳은 첫 번째 공장과는 달리 대규모 공장이었다. 기계가 많았고 공장 규
 모도 컸고 우리나라에서 1-2위를 다투는 커다란 공장이라고 한다.
 나는 그곳에서 스티로폼로 만든 액자를 보기 전까지는 스티로폼로 만든 액자가 스티로
 폼처럼 잘 부서지는 것인 줄 알았다.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스티로폼로 만든 액자는 단
 단했다. 그리고 나무로 만든 액자보다 훨씬 모양 면에서 뒤쳐지지 않으며 가격 또한 저렴
 하다고 한다. 이렇게 스티로폼 재생 공장을 다녀오니, 스티로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.
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재생공장 방문 기회를 얻게 된다면 좋겠다.



* 박 은 | 장위초6 |